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2호 목조삼존불감



목조삼존불감

정양

몽알 한 줌에 부처님 말씀을
죄다 새긴다더니
신음소리로나 만나는 그런 숨씨가
그런 고통 그런 그리움 그런 세월이
승광사 목조삼존불감
이렇게 한 줌으로 빚어졌구나

머리맡에 부두막에 발자락에
언제 어디서나 만져보는 거리
큰 자비 큰 덕행 큰 지혜의 아슬한 높이를
숨죽인 탄성으로 가늠하는 거리

작은 게 가장 가깝고
가까운 게 가장 아프고
아픈 것들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귀찮아하면서
삼존에서는 온 누리에 그 거리만큼씩
가장 작은 몸으로 다가오신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정양 시인은... 전북 김제 출생. 1968년 <대한일보> 등 단.
시집 <빈집의 꿈>, <나그네는 지금도> 등.

“부처님 심인법 전해지도록 수행 매진”

불기 2556년 하안거 결제... 2천 4백여 스님 방부

불기 2556년 하안거를 맞아 조계종 등 전국 선원에서는 6월 4일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일제히 안거에 들어갔다.

조계종종정 진제 스님은 동화사에서 열린 결제 법회에서 법어를 내리고 전국 수행납자들에게 정진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하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하안거 결제를 맞아 승속의 모든 수행자들은 ‘금생에 이 법을 만난 길에 잡나를 알고 이 몸뚱이를 바꿔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와 씨름해야 한다”며 “한화집담과 시비장단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잡나던고?’ ‘어떤 것이 잡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해나가기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 방문 일화를 소개한 진제 스님은 “선종의 본산국인 중국에는 공산화 60년 동안에 선법(禪法)이 없어짐으로 인해 더 이상 안목자(眼目者)가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우리 모든 사부대중은, 한 가닥 밝은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이 단절되지 않고 천추만대에 면면히 이어지도록 빠르게 참선법을 익혀 정진에 정진을 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법어 말미에는 “오는 작금의 종단 사태에 대해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하니 모든 사부대중은 유념해달라”며 “사태 수습은 사부대중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화합하고 수행정진해 불조의 은혜를 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도 하안거 법어를 통해 “불교의 수행은 모든 악을 금하고, 착한 일을 행하여 선경을 쌓으며, 그 마음을

방장·조실 스님 법어 내려
수행납자 용맹정진 당부

정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불교는 먼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마음에 보리와 번뇌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수행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혜초 스님은 수행자들에게 “이번 안거동안 눈앞의 ‘어찌하여 도둑놈이 나의 법의를 빌려 입고, 부처를 팔아 각종 업만 짓는가?’를 회광반조하라”며 “선지식을 넓고, 더욱 더 간절히 마음으로 고요한 호흡속에서 오매불망 정진을 집중하여 최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동화사에서 열린 결제법회에서 하안거를 맞는 대중에게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리고있다.

각 총림에서도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정진에 들어갔다.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은 결제 법어를 통해 “결제란 종생의 불성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용상의 덕은 수행이라는 긴 고통을 참아내야 하고 사자좌는 욕락을 버려야 기약할 수 있다는 옛 선지식의 고구정령한 말씀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은 4일 결제 법회에서 “모두들 자성과 쇄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행이 따르지 않고 말만 내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수행자의 분상에서는 그런 허례허식은 필요치 않고 다만

굳은 의지로 정진해 나가는 것만을 진실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도 하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참선에는 말이 필요없다. 달리는 자동차 같이 가라. 화두에 달라붙어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험덕거리는 마음이 쉬어지고 적멸보궁에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400여 명의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어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신종일 기자·이재진 부산지사장

인문학부터 답사까지...스님 연수교육 ‘다채’

조계종 교육원 하반기 연수교육 7월 23일 시작

남산 답사 등 13개 강좌 신설

조계종 종단 스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꾸며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7월 23일 각목 스님의 ‘초기불교의 정수’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연수 교육은 선전, 삼장, 인문·사회·문화, 사찰운영, 전법향상 등 5개 과정, 25개 강좌로 운영된다.

이번 하반기 연수에는 원로의원 고우 스님의 ‘성철스님의 백일법문’과 학답 스님의 ‘천태기관의 임제가공’을 비롯한 불교 강독부터 이회봉 교수의 ‘현대건축 이야기’, 김중옥 교수의 ‘서양사상의 흐름’, 조운현 교수의 ‘동양문화의 이해’ 등 13개 강좌가 새롭게 신설된다.

특히 인문·사회·문화 강좌들은 스님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현장 교육을 확대를 위한 ‘경주남산 불적답사’, ‘전통건축의 이해와 실습’ 등의 강좌도 진행될 계획이다.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과정은 지역사회복지(40개), 장애인복지(21개), 노인복지(40개), 아동·청소년복지(48개), 재난구호(1개)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으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소속 150개 전국 산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였다.

하반기 연수 교육 대상은 구족계를 유지한 모든 종단 스님과 종단 등록 사찰 주지 스님이며, 3, 2, 1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조계종 연수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와 교육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종책모임 무량, 화엄, 법화회 해체

잔여회비 ‘...동행’에 전액 기부

조계종 중앙총회 종책모임 무량회, 화엄회와 법화회가 5월 30일과 6월 5일 각각 회의를 갖고 해체를 선언했다. 이제 중앙총회 내 종책모임은 보림회 하나만 남았다.

해체 이유에 대해 무량회 관계자는 “종회 종책모임이 이익단체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해

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책 모임에는 비판과 견제 등의 순기능도 존재한다. 현재 순기능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화엄회와 법화회는 잔여 회비 2천만원과 1천만원의 소의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 승려노후복지 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무량회도 남은 회비를 전부 동행에 기부했다.

신종일 기자

자성과쇄신결사 홍보책 발간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범)가 <평화와 행복을 찾아 붓다의 길을 따라>라는 제목의 홍보용 책자가 최근 제작, 배포했다.

포켓형 홍보책자는 △돌아봄시다(자성) △붓다의 아들로 거듭남시다(쇄신) △사부대중이 함께 대중공사를 실천합시다(결사) △결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 4단락으로 구성됐다.

한편 결사추진본부가 발간한 소책자는 전국 사찰과 수행단체에 배포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추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 모

귀의 삼보 하옵고

금번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및 전몰 군경등

호국 영령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靈山堂. 一空 大和尚을 대법주로 모시고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불교 교단 대덕 큰 스님들과 일반 불자 등 사부 대중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 하시어 범석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2년 6월 13일 (오전10시~ 오후1시)

| 장 소: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 식 순

제1부: 현충탑 참배 - (오전10시~10:30분)
군악대, 의장대 동참

제2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
집전 - 국제혜능불교대학 회원 외 15명 (오전11시~오후1시)

| 주 최: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 주 관: 2012(임진년)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합동 위령제 병행위원회

| 후 원: BTN TV 방송국, BBS 불교 방송, 현대불교신문
자유 수호 참전 동지회, 전국 의용소방 연합회,
세계 불교 지도자 연맹, 세계 예술 교류 협회,
월남 참전 자유 동지회, 한국 민속 예술 연구원

| 연락처: 02) 857-2250, 010-2718-0963, 011-285-6800

※참석자 전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이사장 영산당 일공
회장 석연화

